

# 말씀의 샘

## 하나님 중심의 신앙 <창세기 37:6-9, 창세기 41:14-16>

요셉의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훈련되기 전 요셉의 꿈에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시련 허락하심을 통해, 요셉에게 주신 비전과 꿈이 “요셉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온전히 옮겨가십니다.

**창 17:3**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훈련과 연단의 핵심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나”라는 불순물을 빼는 과정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속을 제련할 때도 높은 온도에서 불순물이 빠지고 순도가 높아지면 전성과 연성이 좋아지고 빛깔이 좋아져서 모양과 세공을 하기가 훨씬 용이해지며 제기능이 살아나며 그 가치 또한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음의 불순물, 나 중심의 꿈을 불시험으로 녹여서 우리의 가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첫째, 나 중심의 신앙을 연단하셔서 나를 뽑아내십니다.**

내가 나를 다 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사람들은 스스로의 내면을 잘 보지 못합니다.  
**창 37:6**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 꿈을 들으시오 7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라 8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9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꾀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라 하니라

은혜를 받았다고 신나게 간증하는 요셉의 말 속에서 하나님은 없고 자기만 있습니다. 귀한 꿈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자기가 높아질 것에 들떠 있습니다. 자기 꿈이 이뤄질 것에 흥분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없는 자기 중심의 간증은 교만하고 거부감이 들며 듣는 이를 분노하게 만듭니다. 자기 모습이 이렇게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을 요셉은 잘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욕도 의롭게 살았습니다. 동방의 의인이었고 하나님은 욕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욕을 더 높은 온도로 제련하셨습니다. 고난의 온도를 급격하게 올리자 밑바닥에 숨어있던 욕의 내면이 더 자세하게 드러납니다. 이제는 친구들까지 와서 욕을 공격합니다. 그러자 욕의 내면 깊이 숨어있던 “자기의”가 녹아나옵니다. 자기는 잘못이 없는데 이런 고난이 왔다고 항변합니다. 고난의 도가니에서 온도를 더욱 올려가기 시작하니 욕 스스로도 몰랐던 불순물들이 녹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욥 23:10**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

욕 스스로가 친구들과 항변하면서 자기에 대해 예언과 같은 말씀을 고백하고 말았습니다. 요셉은 애굽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인격적인 비하와 노예 취급을 받았을 것이며 자기의 꿈은 산산조각 난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신 꿈을 부순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이를 요셉의 자아를 부수고 연단하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감옥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도가니에서 풀무로 더욱 온도를 높여서 요셉의 내면 깊숙이 숨어있는 자아를 녹이려 하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감옥에서 바로의 술 말은 관원장, 떡 말은 관원장이 들어와서 꿈을 꾸게 되었을 때, 요셉은 자기에게 드디어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창 40:12**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13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말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14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15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이 수많은 훈련을 거치는 동안, 자기의 자아가 많이 죽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남아있는 요셉의 자아가 특하고 튀어나오고 말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자기를 생각해달라고 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훈련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의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그 결과,

**창 40:23** 술 말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하나님은 마지막 연단을 하십니다. 2년이라는 시간은 남아있는 자기 중심이 완전히 죽어지고 녹아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남아있는 자아라는 불순물이 제거되는 시간입니다.

둘째, 연단을 통해 자아가 죽어진 하나님 중심의 꿈을 사용하십니다.

요셉의 꿈은 변하지 않았지만 꿈을 이를 요셉은 변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된 사람의 꿈을 실행하십니다. 2년 동안 남아있는 자기 자아가 죽은 뒤,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꾸고 꿈을 풀 사람을 찾을 때, 그때에야 비로소 술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합니다.

**창 41:15**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풀다 하더라 16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한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놀라운 발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셉에게 이보다 더 귀한 기회는 없습니다. 자기를 어필해야 할 절호의 기회 앞에, 요셉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냅니다.

**창 41:28**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29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30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31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하므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32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것이 바로 훈련의 결과입니다. 놀랍습니다. 자기의 의는 없고, 자기의 억울함도 없고, 자기를 잘 봐달라는 것도 없고, 교만도 없습니다. 자기에게 달란트가 있다고 스스로를 어필하지도 않고 자기의 입장을 잘 봐달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요셉의 자아라는 불순물이 연단을 통해 녹아져 빠져나가고 하나님만 남으니 더욱 능력있고 거룩하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요셉을 높이십니다. 요셉은 이 말을 한 후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놀라운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지를 정확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 갈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자아가 죽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하게 세워진 사람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집중하고 물 흐르듯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아와 옛것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님만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자기의 잘난 지식과 자아는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십자가만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선명하게 살아나고 여러분의 자아는 십자가와 함께 온전히 죽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두란노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이뤄지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016년 10월 30일 주일예배 이 강화 목사

## 2016. 11. 6 주일 예배

찬양과 기도 ----- 찬양팀 (인도-구수진 사모)

성 경 봉 독 ----- 마태복음 6:9-13

말 씬 선 포 ----- 이 강화 목사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축 도

두란노 소식 ----- 4면에 있습니다

## 예 배 안 내

주일 예배 : 주일 오후 2시

수요 예배 : 수요일 오후 8:00

금요 예배 : 금요일 오후 8:00

새벽 기도 : 화요일~토요일 오전 6:00

